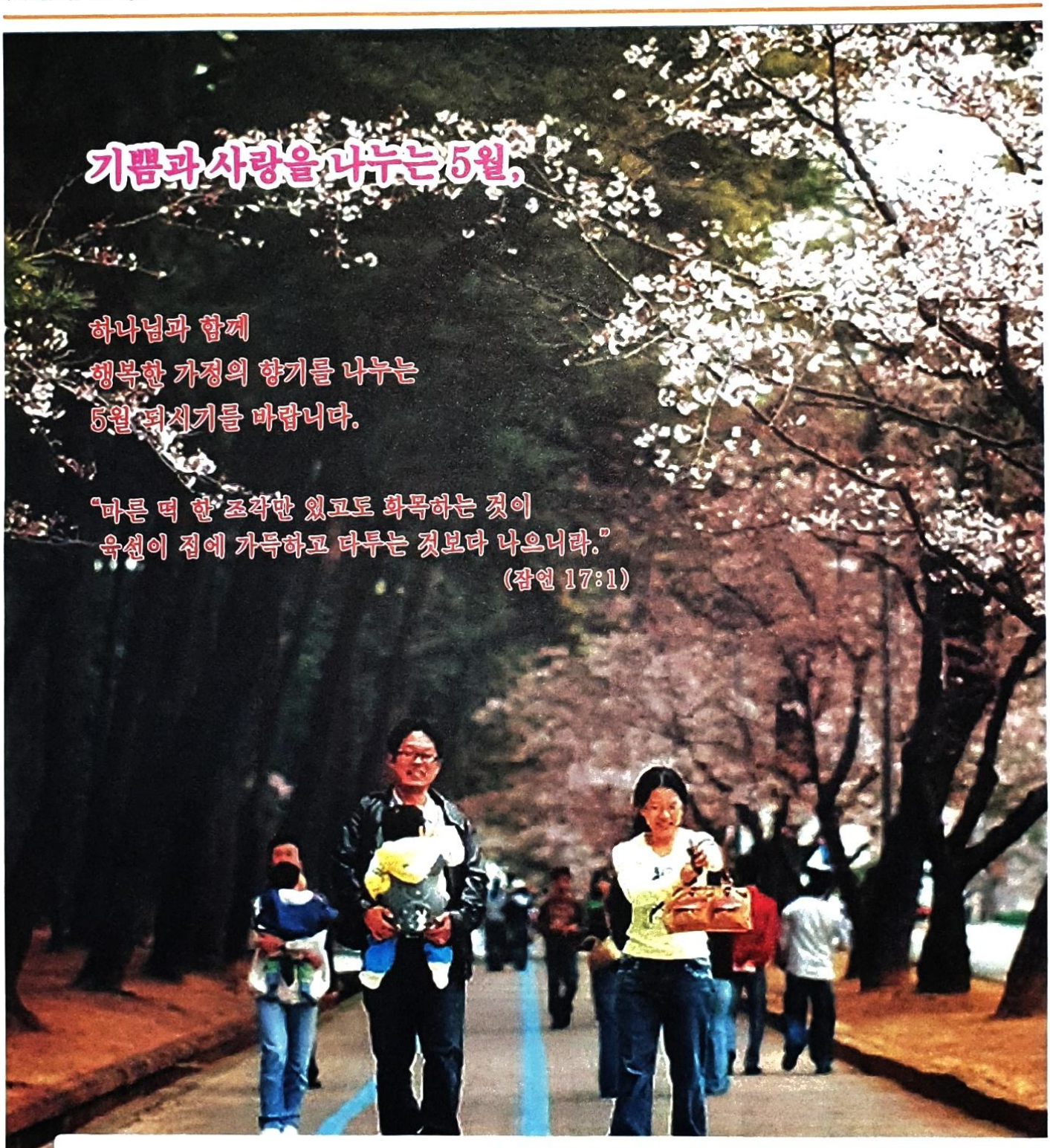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정효근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26호 2009년 5월



INDEX

2 한국교회가 기독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4 · 5 문서선교의 첨병, 기독교서점 회생의길을 묻는다.
6 세상문화를 정복하는 교회
8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9 | 똑똑한 등산이 내몸을 살린다(III)



13 | 미리클메이커와 조안오브아키다마

한국 교회가 기독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독교가 120여년을 한국에 뿌리내리면서 과연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속에 기독교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이에 걸 맞는 기독교 문화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수밖에 없다. 폴 틸리히의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란 말을 빌리면, 문화의 실체인 종교가 어떤 다른 문화와 접하게 될 때에는 그 문화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 왔다. 한국에 불교, 유교가 들어오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종교가 갖는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한국의 새로운 예술 문화, 규범 문화를 소개하여 사회를 성장시키고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봉건 말기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 근대 사회와 근대 문화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기독교와 문화

선교 120년이 넘고 기독인구가 4분의 1이 넘는다고 하는데 기독교 예술, 기독교적 가치 등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니버(H. Richard Niebuhr)는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5개의 문화 유형을 설명하였다. 지면상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웨버(Robert E. Webber)교수도 그의 책 〈기독교 문화관〉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세 가지 관계 모형을 설명하였다.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변혁 모델을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속 문화에 접근해야 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제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말할 때, 물질문화, 행동문화 및 정신문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물질문화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도구 등 생활용품을 포괄하고, 행동문화는 예의범절이나 관습, 제도 등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문화이며, 정신문화는 종교, 사상, 철학 등 인간 생활의 이상이나 방향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물질문화는 수용하였고, 행동문화에 대해서는 충돌 혹은 반발하였고, 정신문화와 기독교의 가치관은 도리어 한국문화에 몰입되어 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을 관념화시키고, 내세화 시킨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구분하고,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적인 구조 속에서 기독교 문화는 싹을 틔울 수가 없었다.

기독교 문화의 실현

기독교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그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뜻과 주권이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 문화의 실현이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정치, 경제의 구체적 현장인 제도와 체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음은 초문화적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옷과 형식을 취한다. 일례로 복음이 전파되려면 선교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파될 수 없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선교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적응과 변혁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 가치관이 음악과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적인 분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체제, 헌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제도, 윤리 도덕 등의 행동규범에도 실질적으로 확산시켜 가야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 자본주의 가치관이 심어준 물질만능주의 풍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청지기 정신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실천하고, 청빈, 절제의 생활화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잘사는 것' 대신에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힘' 대신에 '정의'를, '폭력' 대신에 '평화'를, '움켜쥐는 욕망' 대신에 '나누어주는 기쁨'을 가꾸어가는 문화임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스며든 교회



여기 작지만 소박하게 교회가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스며들듯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한다.(큰나무교회)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자리 잡은 큰나무교회 담임 임종수 목사는 엉뚱 · 기발한 실험목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화산 끝자락에 위치한 큰나무교회는 눈에 띄는 세련된 외관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9년 전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임 목사는 교회 옆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착안해 아예 교회이름을 '큰나무'로 지었다. 이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이 아름드리나무는 큰나무교회로 인해 이제 지역주민 모두에게 그냥 '큰나무'로 불린다. 이렇게 시작된 임 목사의 '엉뚱함'은 기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린다. 봄이면 주민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는가 하면 개화산에 핀 야생화를 촬영해 달력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거리전도를 안 했다. 간혹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개화산 안내 팜플렛에도 교회얘기는 쏙 빠진다.

꽃씨 나눠주고, 야생화 캘린더를 만들고….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순한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들에 대한 '시대적 처방'이다. 모든 자연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 바꿔 말하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다. 꽃이 주는 정서의 순화, 그렇게 마음속에 한 송이의 꽃을 심는 일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자연보호에 있어서도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있다. 적어도 꽃 이름을 안다면 함부로 밟지 못하지 않겠나?"

그간 교인 수는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임 목사가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아무리 종용해도 먼 거리를 불사하고 큰나무교회를 찾는 이들은 여전히 늘고 있다.

주보디자인도 파격적이다. 성화나 교회당 조감도는 간데 없고 활짝 웃는 교인들의 얼굴이 가득하다. 때론 개화산의 꽃이, 방화동의 거리풍경이 등장키도 한다.

지난 1997년부터 큰나무교회는 매년 'TV 한주간 끄기' 운동을 벌여왔다. 이 기간 교인가정은 'TV는 끄고 사랑은 켜고'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로 TV모니터를 가리고 온 가족이 교회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꼭 예배보고 찬송해야 교회인가? 그저 사는 게 전부 예배"**라고 말하는 임종수 목사는 "교회자체에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부턴가 교회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렸다.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는냐?'가 중요하고 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큰나무교회가 기성 한국교회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 교회는 시대 · 문화와의 공감대가 취약하다. 시대와 동떨어져 그 시대의 언어를 상실했기 때문에 점차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큰나무교회는 이런 잃어버린 공감을 찾는 일에 주목한다. **기존 한국 교회의 유지수단이 '전도'였다면 큰나무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문화'를 활용한다.** 교회의 내부 컬러 하나, 작은 구조물의 디자인 하나에도 '교회는 이런 모양새'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시대문화와의 동행에 애써왔다. 이런 면이 교회가 새로움을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편집위원 · 최 영 조]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찾아오시는 길 ……
웨미리뷔페

말레이시아 페낭섬에서 온 선교편지

춘천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박종돈 · 한인자 선교사









이곳은 회교국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서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이고 작고 아름다운 섬 페낭입니다. 말레이시아는 4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주민,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입니다. 인도인을 인디언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회교도인 말레이인들에게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고, 말레인들을 전도하다가 들키면 즉각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밀하면서도 지혜로운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섬 이곳, 페낭은 4인종 중에 3인종,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3인종은 종교와 문화와 삶이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작은 섬 안에서 각자의 색깔을 열심히 드러내며 자신들의 종교성을 나타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문화와 종교 행사를 인정해주고 있고 서로의 것들을 존중해주며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종별마다 지키는 특별 종교행사들로 인해 공휴일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이곳 페낭섬에서의 저희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이노니아 선교 훈련센터

코이노니아 선교 훈련센터는 선교사 수련회, 선교훈련팀, 비전트립팀, 단기선교팀, 대학생 리더십훈련팀, 해외근로자들 리더십훈련 등 다양한 팀들이 와서 선교훈련을 받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저희의 사역을 도우면서 실제적인 선교훈련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만의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훈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교훈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적인 안목을 갖고 떠납니다. 아울러 여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 가정들이 여행 중에 잠시 쉬고 가는 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디언 어린이 토요일과 주일 사역

코이노니아 선교 훈련센터 주변에는 인디언 마을이 몇 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깨진 가정들이 많고 아픔이 많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인디언 영화만 하루 종일 시청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작은 집 공간 안에는 힌두교 신을 모신 곳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향불을 피워 항상 집 안에 향냄새가 가득합니다. 가정 방문을 하다보면 그 향냄새로 인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주로 토요일은 학교 공부를 돕고, 주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와 다양한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10여명의 크리스천 자원 봉사자들이 와서 저희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계란을 예쁘게 싸서 바구니에 넣고 강대상을 장식하여 예배드리고, 그동안 준비한 드라마와 워십댄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서 후에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주로 선교팀들이 오면 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캠프와 가정 방문, 새찬양과 몸찬양 등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중국인들을 위한 문화 사역

평일 저녁에는 중국인들을 위한 한글 가르치는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 인기 가요와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들은 최신 가요와 영화,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컬리지학생, 직장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곳에서 알려져 있고 그것을 통해 비자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오면 이들에게 한국 전통춤과 한국 고유의 음식을 가르치는데 그 호응도가 높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자선바자회를 열어 인디언 어린이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페낭 한인교회와 한글학교 사역

1994년에 개척하여 세운 페낭한인교회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페낭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고 가장 열심히 모이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남편 박종돈 선교사와 제가 개척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 모이고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페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돕고, 마약 알코올 재활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한국인 어린이와 중학생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계속 15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8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를 담당하는 한인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기도제목

5월 가정의 달 여러 행사들과 7월과 8월의 단기 선교팀과 리더십 훈련팀 등의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8월에는 인디언 어린이 바이블 캠프와 한인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학생부와 청년부 성경캠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 충만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은 각 인종별 종교행사들로 인해 심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회교사원으로 이어지는 회교도들의 긴 행렬, 앞으로 있을 불교의 큰 행사로 인한 중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선교는 쉽지 않음을 매순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월 인디언의 타이푸삼이라는 흰두교 행사가 있었는데, 몸에 창과 핀을 찌르고, 몸에 찌른 여러 개의 핀의 힘으로 힌두교 신전으로 향하는 마차를 끌고 가는 이들의 행렬과 그 뒤를 따르는 환각 상태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 신께 헌신하기 위해 머리를 밀은 수많은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며 선교는 결코 쉽지 않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고향이 춘천인 저도 아름다운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말레이시아 페낭섬에서
박종돈, 한인자 선교사 올림.
http://kkcc.rootda.org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우리교회 성도"를 위한 (KTF 번호이동,전환신규,신규가입) 특별행사

my LG 070 인터넷 전화 ★보급 이벤트★ 특가제공 99,000원 33,000원 문의 : 1644-3151

[검풍이폰 LG-KB2700] 블 랙 | 출고가: 473,000원 | 번호이동 | 공짜(0원) | [번호이동시 기존번호 그대로] | 신규가입 | 공짜(0원)

[레인폰 IM-S240K] 화 이 트 | 출고가: 385,000원 | 번호이동 | 공짜(0원) | 전환신규 | 공짜(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쿠키폰 LG-KU9100] 화 이 트 | 출고가: 594,000원 | 번호이동 | 290,000원 | 전환신규 | 290,00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와인폰 LG-KH4500] 블 랙 | 출고가: 418,000원 | 번호이동 | 40,000원 | 전환신규 | 40,00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와인폰1 LG-KV3900] 블 랙 | 출고가: 399,000원 | 번호이동 | 공짜(0원) | 전환신규 | 가입불가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시크릿폰 LG-KU2000] 블 랙 | 출고가: 699,000원 | 번호이동 | 230,000원 | 전환신규 | 230,00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슬림TV폰 LG-KU1700] 블 랙 | 출고가: 429,000원 | 번호이동 | 30,000원 | 전환신규 | 30,00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KTF 특별행사 가입조건] *상기 모델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3개월이내 해지 / 번호이동 / 일시정지 / 명의변경 불가
※ 요금제 : 쇼표준(3G) 또는 신표준(2G) 요금제로 개통 (개통후 변경 가능)
※ 가입비 3만원 : 3개월 분납 (전환신규의 경우 12월까지 기입비 면제)
※ 가입신청서 외 첨부서류 : 가입신청서는 당교회사무실 비치, 주민등록증 사본,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학생증 추가
※ 요킹스폰시 12개월 약정 (약정보조금 50,000원) : 12개월이내 해지시 고객위약금 발생
※ 부가서비스 : 우리교회폰끼 (4개월 사용조건, 2,000원/월, 1개월 무료제공) : 추후 임괄 가입 예정
※ 전환신규 가입조건 : 기존 KTF 6개월이상 기입자만 가능함 (단, 바이블폰 기존 가입자는 12개월이상)

[이트라이텐폰 LG-KH2200] 화 이 트 | 출고가: 429,000원 | 번호이동 · 전환신규 | 공짜(0원) | 신규가입 | 가입불가

[상담 및 문의] 전 화 : 033-244-0015 / 팩 스 : 033-241-7544



문서선교의 첨병, 기독교서점 회생의 길을 묻는다!

| 참여자: 고재만(평안교회 담임, 본보편집위원), 권성주(춘천교회백화점), 홍광유(안디옥기독서점)

기독교출판계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독교서점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서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에만 폐업 또는 제명된 기독교서점은 부산, 경남지역 7곳,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각각 5곳 등 총 29곳으로 집계되면서 기독교서점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서점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크리스천 독서인구의 저조와 교회성장의 둔화로 인한 교회행사의 감소, 인터넷 구매확산, 할인판매의 악순환, 기독교서점 경영상 문제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복음화를 위한 문서선교의 첨병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 분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향토 기독교서점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생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

현재 기독교서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 홍 광 유 (장로, 안디옥기독서점)**

인터넷 서점과 경쟁하여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젊은 독자층들이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서 서점의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교회들도 점차 지역 내에 있는 기독교서점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점은 출판사에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 권 성 주 (장로, 춘천교회백화점)**

홍 장로님의 견해에 공감한다. 지방에 존재하는 기독교서점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부터이다.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는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상거래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작년에 성경, 찬송가가 개역개정판과 새찬송가로 바뀌면서 서점에서 판매하는데 정상적인 상거래와 상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심적인 충격을 받았다. 출판사에서 지역서점에 물건을 대주면서 뒤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기독교서점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 달라.

*** 권 성 주**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교서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문서선교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서점을 운영해 왔다. 기독교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낱 장사꾼이 아니다. 문서선교의 차원에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며칠 전 어느 사모님이 책을 사면서 **"우리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지만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여기에 왔다"**는 말을 듣고 깊게 감명을 받았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서점을 문서선교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 홍 광 유**

처음에 서점을 시작할 때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요즘 들어 제일 괴로운 것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데도 저 사람은 할인도 안해 주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이다. 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독교서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기독교서점을 바라보며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전파를 위해 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독교서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기독교서점이 회생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고 재 만 (목사, 성시신문 편집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지역 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경향은 가격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편리성이 더 많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접 서점으로 가는 수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택배서비스의 개선으로 원하는 시간이나 시일 내로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당일배송도 가능하다. **향토 기독교서점이 생존하고 회생하려면 독자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서점의 노력과 함께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권 성 주**

편리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10%할인이 보편화되어서 인터넷 서점이나 지역의 기독교서점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형편이다. 기독교서점이 회생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서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독교출판계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로 2001년 10월 기독교문화상품권을 출시, 기대를 걸었지만 역부족이다.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기독교서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서점이 회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역할이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책을 많이 소개하고 읽혀야 한다.**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책을 읽히는 것은 목회와 설교사역에 큰 유익이 된다. 보통 목사님 설교는 들을 때뿐이지만 책은 지속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

*** 홍 광 유**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기독서적 독서율은 2%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히 지역 내 기독교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대다수라는 보고서를 봤다. **먼저 성도들의 독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서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다. 강사로 나온 전병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은 1달에 책을 300권 읽는다고 간증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 10명만 찾으면 기독교서점의 운영은 해결된다고 주장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책을 많이 읽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은

춘천장로교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바자회
♣ 일 시 : 2009년 5월 5일(화) 오전10시~오후3시
♣ 장 소 : 춘천 컨벤션센터
♣ 내 용 : 1부 / 예배, 2부 / 공동체 프로그램, 3부 / 체육대회
• 춘천장로교연합회 산하 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년부에서 어린자녀들까지 다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 행사 당일 야외에서 먹거리장터가 진행됩니다. 수익금은 춘천지역의 개척교회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문 의 : 김원중 목사(춘천장로교연합회 총무) 010-2061-2161

문의 : 033-253-3399, 010-5015-8291
세계 젊은이 축제
WORLD YOUTH FESTIVAL
2009. 5. 22(금) 오후 4시
봉내 버원 5층 배도로 선교센터 바나바 교회
대상 :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 유학 온 유학생
내용 : 1부 레크레이션
2부 강연 - 도전하는 젊음! (강서제일교회 류지형 목사)
3부 디너 피티 (통돼지 비베큐 피티)
4부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 진행자: 정재호 / 사 진: 김미경

주보에 실린 책소개 광고를 보고 서점에 오셨다.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책을 홍보해 주시면서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시면 좋겠다.**

기독서적 독서율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 권 성 주

홍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교회 주보에 책을 소개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성숙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권의 좋은 서적으로 고민이 해결되고 신앙이 성숙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또한 여건이 허락되면 **춘천지역의 기독교서점들이 연합, 성시화차원에서 매년 문서선교의 날을 선정하여 기독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공모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 홍 광 유

주일학교 혹은 학생부 교사들이 기독교서점에 올 때 가능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오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지역 서점을 방문케 하여 기독문화를 체험케 해야 한다. 또한 달란트 잔치 등과 같은 행사를 기독교서점에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고 재 만

성도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 교회에서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책을 소개해도, 사줘도 실제로 책을 안 읽는 것을 보면서 릴레이 독서운동을 시작했다. 일정기간동안 책을 읽은 후 다른 성도에게 책을 넘겨주게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책을 읽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어 책을 지속적으로 읽게 되면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공주에서 목회할 당시, 유일하게 시내에 있었던 기독교서점은 시골에서 올라온 목회자들에게 사랑방역할을 했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기독교서점도 독서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은.

✲ 홍 광 유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토 기독교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물론 기독교서점을 경영하는 우리들도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경영 및 판매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교회가 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

✲ 권 성 주

향토기독교서점이 회생하여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서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지역 내에 있는 기독교서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향토기업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기독교서점을 일반서점처럼 이익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문서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지체로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고 재 만

전적으로 동감한다. 기독교서점이 회생하여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시화를 위한 기독교서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회 내 독서운동전개, 교회 도서관 설치, 기독교 서적 용품으로 선물주기, 기독교문화상품권 활용 등을 통하여 기독교서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성시화의 고장 춘천, 성시목으로 꽃 피운다!

3월 성시신문에 소개하였던 성시목 식재계획에 따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올해 120그루의 산딸나무(일명:십자가나무)를 심었다. 지난 4월 16일(목) 오전10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GS마트 건너편 대우아파트와 그랜트아파트 완충녹지대에서는 장효근 본부장, 정재호 사무총장, 이학규 춘천흡리클럽회장, 이영식 장로연합회장을 비롯해 성시화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딸나무를 식목하였다. 이 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는 산림녹지행정 경력을 가진 숨은 일꾼(안디옥교회 민병업 장로, 성시사무부총장 김영명 장로)의 노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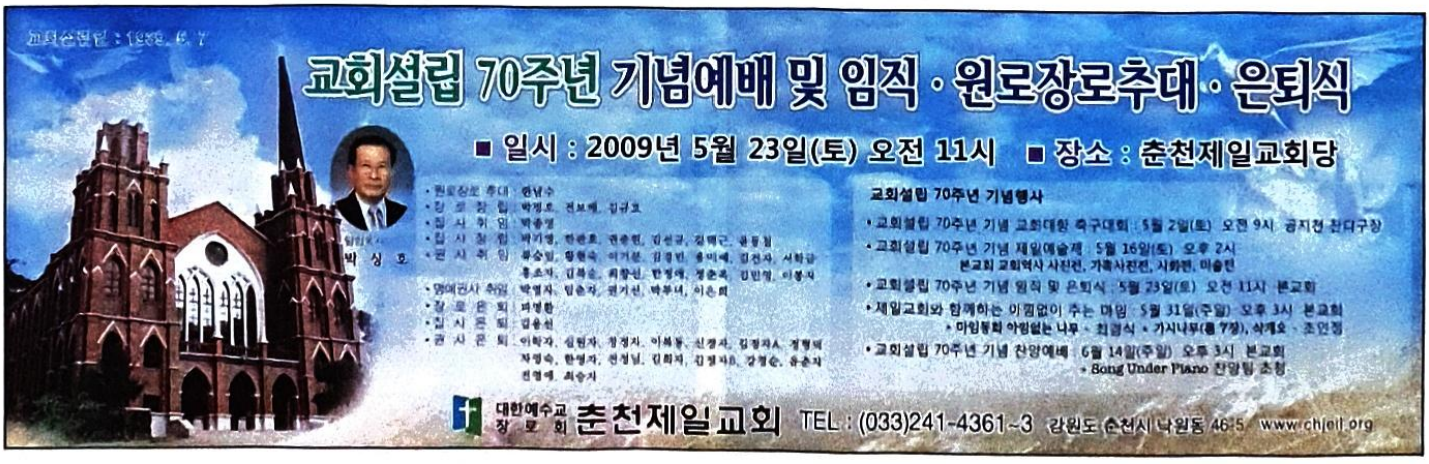
성시화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 춘천, 성시화 모델도시로서의 춘천을 상징하는 성시목 〈산딸나무-십자가나무〉는 꽃이 귀한 6월에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것이다.

앞으로 매년 이 성시목을 확대 보급하여 성시춘천의 명품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이 일에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

※ 성시목 헌수 및 후원으로 동참해주신 사랑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베드로선교센터 △사암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중부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흡리클럽 △해비타트춘천지회 △김봉재
△성하영 △이창호 △임진성 △장기영



[편집부]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교회

대소원교회는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에 위치한 90년 역사의 교회이다. 하지만 황 목사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피폐한 교회였다. 교회 내의 분열과 싸움으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심방은 불가능했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설교를 들어야했다. 하지만 황 목사의 문화사역에 대한 확신과 복합적인 전도 프로그램으로 인해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충북 충주의 대소원교회(황대성 목사)편입니다

황대성 목사의 고민

황 목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 학교와 교회밖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 가르치는 것은 다 배워 엘리트 코스를 밟아 목사가 되었다. 목회를 시작하고도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심방하고 전도했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쉽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다. 처음에 박수치던 사람들도 교회가 정체되고 일상이 되어 버린 예배와 전도, 심방과 부흥회 등이 반복되면서 식상하고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황 목사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한 것이었다. 그 답답함의 원인을 찾기 10여 년 동안의 힘든 여정에서 얻은 결론은 변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였다.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변하는데 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가 시대에 맞게 체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소리에 부임하다

황 목사가 대소리에 부임했을 때 대소리는 충주의 변두리 면소재지였다. 경제력도 약하고 요즘과 같은 고학력 시대에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극히 배타적이고 교인과 교인, 교회와 주민, 주민과 주민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심했다. 최근 몇 년간의 교회 내의 분열과 싸움으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황 목사가 처음 한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었다. 황 목사는 성급하게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묵묵히 일하고 아주 작은 기회라도 달라고 기도했다.

황 목사는 대심방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허름한 집 앞마당에 옛 모습 그대로의 작은 꽃밭을 보게 되었다. 붓꽃, 맨드라미, 채송화와 봉숭아가 피어 있었다. 그 순간에 '봉숭아 물을 들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꽃을 심고 동심으로 돌아가 봉숭아물을 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때부터 교회 마당에 꽃밭을 만들기 시작하고 봉숭아 씨를 뿌리며 잔디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다. 여름이 되어 봉숭아 꽃물들이기 대회를 열었다. 20-30명 남은 교인들 중에 대여섯 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 어린 세 딸과 함께 손톱과 발톱에 모두 봉숭아물을 들이고 온 사람이 있었다. 거기서 부임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보았다. 용기를 얻어 이웃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봉숭아 꽃 잔치"라는 이름을 걸게 되었다. 그것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켜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문화사역이다

황 목사는 800여 평의 교회 부지를 공원화시켜서 야생화 40여종을 심고, 봉나무로 경계목을 만들고, 소나무 공원과 조롱박 공원을 만들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항상 피어 있게 했다. 교회와 교회 인근에서 봉숭아 꽃 잔치를 열어도 교회의 홍보나 직접적인 전도는 피했다.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대단했다. 전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며, 무력감에 휩싸여있던 교인들은 자신감에 충만해졌다. 해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봉숭아 꽃 잔치"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열었다. 자전거 동호회 구성이 그 예이다. 자전거를 단체로 구입하고 옷을 맞춰 입고 논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교회 생활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행사,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찍은 풍경사진을 액자에 넣어 교회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용기를 내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아파트 앞에서 길거리 전시회를 했더니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사역은 교회의 주류세대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50대 이상의 노인만 있던 교회, 싸움으로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이르렀던 교회가 이제는 아랫세대가 부흥하면서 어린이집 자모인 20-30대 주부들이 교회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황 목사는 고백한다. 사물놀이팀 운영, 부채춤팀 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삼겹살 파티는 대소원교회의 자랑거리다.





더 큰 비전을 향해

교회 구성원인 10여명의 '봉숭아 꽃 잔치'라는 이름으로 초라하게 시작했던 행사가 KBS, MBC, CBS 등은 물론 일간 신문과 메트로 등 무가지와 잡지 등 언론이 관심을 갖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교회의 화두는 문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문화의 창출에 있다고 황 목사는 믿는다. 문화란 삶의 양식이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매력 있다고 한다.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그 분야에서 최단을 달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팬들이 열광하고 따라간다. 그들의 몸짓, 패션, 취향까지 닮아가려 한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교회가 더 강해져야하는데 있다. 더 당당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흡인력이 있어야한다**고 황 목사는 믿는다.

세상문화를 정복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황 목사와 대소원교회, 하나님이 그 위대한 비전만큼 축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정리. 편집위원 최상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영혼의 양식

봄바람이 부는 가정

(잠언 15:15-17)



엄기홍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고난 받는 그 날이 다 협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15-17)"

이 말씀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1.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15절).

15절에 "즐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로 써 기본 의미는 '결실이 좋다', '선을 행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으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에 넘치는 즐거움을 묘사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고난 받는 협악한 날들 중에서도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경건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크게 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그에 앞서 "너를 낮추시는" 과정이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명기 8:16)"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마침내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입니다.

3.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6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거뜬히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체제분열과 남북분단 그리고 세계 최빈국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끈끈한 사랑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축복보다도 이미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간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찬송가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구찬송 305장)을 나지막히 불러보면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선을 행함으로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사색의 장

구태여,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전상기 목사 (한국복음주의신학교 원어교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최초의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창2:1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17)"고 명하신 이 말씀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물 심판이었고, "**노아**의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고(창9:19),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창10:32)면, 역시 이때까지도 다 한 언어를 사용하였으니, 그래서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창11:1) 하신 그 하나의 언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6-9) 그 원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케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진(창11:9) 셈의 후대에게서 **아브람**이 났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하였으니(창11:10~) 그들은 분명히 갈대아어(Chaldee) 즉, 아람어(Aramaic)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아람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이면서 문법체계가 좀 더 나은 성경 히브리어가 B.C. 2000년 초기에 독립 방언으로 가나안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함께(창31:47, 렘10:11, 에스라, 다니엘2:5-7:28, 막5:41, 마27:46등) 사용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갈대아어는 동일 시전에서 취급된다. 언어학적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옛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의 셈계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니 곧 갈대아어를 사용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실증으로 신9:10절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친수로(with the finger of God)" 기록한 것은 그 원어가 갈대아어이며, 단5:5절의 "사람의 손가락(fingers of man's hand)"은 사전에 아람어로 표기되었다.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며,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족속에게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었고, 그들은 조상의 언어를 자연히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아람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아람어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기록한 것을 후대에 문법체계가 더 나은 히브리어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언어요 외국어가 아닌 우리 옛 조상의 원초적 언어이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과 대화하신 언어가 아니겠는가? 어찌 되었든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은 정경(Canon)으로 채택 된지 오래며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신 성경원어인즉, 그러므로 성경 원어는 우리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의 언어로서 외국어가 아닌 반드시 습득해야 할 조상의 언어가 아니겠는가?

★ 독자 투고 사색의 장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
● 일시 : 2009년 5월 24일(주일) ~ 27일(수)
오전집회 10:00~12:00, 저녁집회 07:00
● 장소 : 신성감리교회
● 강사 : 피 종 진 목사(남서울교회 원로목사)
● 문의 :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주 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
효신 홈 커밍데이 초청잔치
● 일시 : 2009년 5월 23일(토) 오전 11:00
● 장소 : 춘천시 온의동 14번지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 고문 : 방지산목사, 방지각목사, 이상욱목사
● 준비위원장 : 엄두영장로
● 대상 : 효신교회, 효신중고등학교 출신 및 가족
● 문의 : 효신교회 254-2060, 이규수 장로 010-7189-1823
● 홈페이지 교회 : www.hyosin.org / 선교회 : www.hyoshin.or.kr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던광고 대표 한병천 권사(한길교회) 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모던광고 작업현장에서 만난 한병천 권사의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믿음의 가문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던광고 대표 한병천 권사. 4대째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가문은 어떤 집안일까? 그리고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처음 작업실에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 권사의 첫 인상은 편안함이었다. 그리고 넉넉해 보이는 여유로움이었다. 얼마 안 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오랜 동안 집안에 내려온 신앙의 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잠재적인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어느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어릴 때부터 보고 들어온 믿음이 있어서 늘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한 권사의 고백이다.

한 권사 집안의 첫 열매는 고조모 조엘라 선교사이다. 그리고 할머니 정경애 장로는 한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장로로 장립된 분이다.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와서 화천군에서 문화원장을 역임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기쁨으로 성가지휘로 봉사하셨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화천군에서 군장으로 모실만큼 군에 큰 영향을 끼친 좋은 그리스도인이셨다. 지금 한 권사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신옥수 권사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 아내와는 대학에서 CCC 활동을 하면서 나사렛(CCC 졸업생 모임)으로 만났다. 음악을 전공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온 가족이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한 음악을 즐긴다. 한 권사는 색소폰, 아들은 클라리넷, 딸은 뮤지컬을 하고 있다. 한 권사는 독학으로 색소폰을 하지만 두 자녀는 전공을 한 인재들이다. 그래서 한 권사는 지금도 교회에서 온 가족이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드렸던 첫 열매 고조모를 통해서 그리고 선조들의 믿음으로 인해 이 가문과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주고 계신다. 아버지 형제는 모두가 목회를 하셨고, 지금 한 권사의 형제 중에서 2명은 미국에서, 2명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축복을 받았다. 또 이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같이 주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를 보면 기독교가 척박한 시대에 생명을 드린 고조모의 믿음이 그 씨앗이 된 것이 분명하다. 한 권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을 만큼 건강할 뿐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한다. 이와 반대로 집안에서 첫 열매인 아내 신옥수 권사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인 집안과 기도가 없는 집안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피부로 늘 경험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신명기의 말씀(7:9)과 같이 그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일 이야기

울산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한 권사가 광고업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참 작은 일이 발단이 되었다. 평소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동료들에게 명찰도 만들어주던 것이 그 계기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네온사인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배운 후 어머니의 고향인 춘천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모던광고를 차렸다. 그 당시 춘천에는 나염 현수막이 없을 때 처음 컴퓨터로 된 실사 현수막을 공급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단골고객들이 많이 늘었다. 지금도 대부분은 단골고객들이고 10년 이상 된 고객들이란다. 간판은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가가 나오는데 모던광고에서 만든 현판은 10년이 지나도 고장이 없어서 많은 고객들이 감사해 한다고 한다.

위기(색깔을 분명이 하라!)

성실하게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보니까 건물도 짓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했다. 로타리 회장을 맡아서 여러 해 동안 봉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디오피아 후원 사업과 지역 장학사업 등 많은 선한 일을 했다(지난 호에 실렸던 커피테마파크 신광철 대표이사와 함께 이디오피아 코리안 빌리지를 방문, 그곳의 간판을 직접 만들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 일을 하다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역시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한다. 사실, 한 권사는 오래된 믿음의 집안의 많은 자녀들처럼 처음 믿은 사람들의 열정과 성령의 체험이 깊이 있게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도, 십일조를 하지 않은 적도 없고 교회 모든 봉사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권사의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제사와 삶의 예배를 원하셨나보다. 하나님께서는 권사의 사업을 빠르게 거두어 들이셨다. 건축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시점에서 IMF를 겪으면서 사업은 많이 힘들어지고 위축되었다. 아내 신 권사는 그즈음에 남편에게 늘 이야기했다고 한다. **"색깔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 색깔만 분명히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다.

회복

방향을 잃고 있던 그 시기에 감리교 영성수련원 엠마오 12기로 참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크게 변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색깔을 지닌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할머니가 늘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아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장로로 교회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한병천 권사, 아내 신옥수 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참 편안했다. 오랜 믿음의 가정에 주신 편안함이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사업도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세밀하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한 권사 부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된다.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12기 춘천 킹스키즈 (King's Kids)

주 제 : "빛 가운데 뛰놀리라"

♣ 일 시 : 강의 6월 13일 ~ 8월 29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8:30분
(전도여행 : 중국 운남성)
♣ 대 상 : 초등 4학년~ 고 2학년까지
♣ 회 비 : 32만원 (전도여행 별도)
♣ 접수마감 : 5월 23일까지 (접수비: 2만원)
♣ 문 의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청소년사역부
033)252-1128, 010-2744-1321

건강을 위한 운동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 (III)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는 야마모토 마사요시의 저서(선우섭 옮김, 마운틴 북스, 2008)이다. 그는 운동생리학과 트레이닝 과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다. 그의 저서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중에 등산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등산과 건강", "등산과 피로(1)에 이어 이번 호에는 "등산과 피로(2)"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 호에서는 A. 오르막 길에서 나타나는 피로와 B. 내리막길에서 나타나는 피로에 대하여 살폈다. 정리하면 오르막길은 호흡·순환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만 근육계에는 거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내리막길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내리막길에서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피로가 발생한다. 내리막길에서는 골격근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근육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등산과 피로(2)

먹고 마시는 것과 피로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짧은 시간에 등산하는 경우는 큰 지장이 없지만 비교적 장거리 등산에는 음식과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 피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상식을 운동생리학적으로 이해하면 효율적인 등산을 할 수 있다.

C. 에너지원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피로

활동할 때 사용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지방은 많이 저장할 수 있으나 탄수화물의 저장량은 조금밖에 안 된다. 탄수화물은 체내에 일정량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이다.

지방을 사용한다면 주·야간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경우라도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나,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겨우 1.5시간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해도 3시간 정도 등산을 계속하면 탄수화물은 먼저 고갈되어 버린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지방과 혼합되지 않아도 연소되지만 지방은 탄수화물과 혼합되지 않으면 연소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지방이 아무리 많이 남이 있어도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즉,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면 피로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방도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지치게 된다.

따라서 먹지 않으면,

1.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보통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1~2시간의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지친 선수에게 당분이 들어간 주스를 먹이면 혈당이 급속도로 회복되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등산기술서에도 등산 중 지칠 때는 휴식을 취하고, 당분(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리학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다.
2. **뇌 활동이 떨어진다.**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근육이 피로할 뿐만 아니라 뇌 또는 신경계도 피로해진다. 뇌는 중량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재미있는 것은 근육은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어느 쪽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뇌·신경계는 탄수화물만 사용한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근육 피로뿐만 아니라 뇌·신경계의 피로도 나타난다. 뇌·신경계는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첩성, 교치성, 평형성과 관계되는 운동 능력, 시각, 청각, 촉각, 온도 감각 등의 감각 능력 그리고 사고력, 판단력, 집중력, 의지력 등의 정신적인 활동 능력을 담당하고 있다.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이러한 능력이 모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사고로 이어진다. 등산사고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경에 자주 발생하는데 탄수화물의 고갈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근육이 손상된다.** 우리 신체는 탄수화물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단백질을 분해하여 탄수화물로 바꾸어 연료로 사용한다. 이때 급격하게 분해되는 것이 근육 단백질이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보급하지 않고 등산을 계속하면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공들여 증가시킨 근육이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된다.
4. **먹지 않으면 내장이 손상된다.** 근육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근육이 연소되면 그 노폐물로서 질소 화합물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신장에서 여과하여 오줌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면 신장에 과도한 부담이 걸리게 된다. 등산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며칠 동안 손발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장이 피로해서 수분 배출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A : 당류 – 속효성 연료로 혈당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쳤을 때에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B : 전분류 – 지효성 연료로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 효과가 장시간 지속된다. 전분류 중에서도 빵이나 감자보다 밥이나 면류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아침은 전분류, 특히 밥이나 면류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심은 탄수화물이 고갈되기 쉬운 점을 생각하여 한꺼번에 먹지 말고 이동하면서 중간 중간에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2시간에 1회씩, 전분류와 당류를 섞어서.

D.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나타나는 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온이 상승하여 쉽게 피로가 발생한다.

1.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 쾌적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자유롭게 마시는 정도로는 불충분(50% 보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실 필요가 있다.

2. 탈수에 의한 여러 가지 장해

A : 피로 – 체중의 2% 정도가 탈수되면 혈액 속의 수분 량이 떨어져 혈압이 낮아지고, 근육으로의 연료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구성 운동 능력은 10% 떨어진다.

B : 열사병(일사병)

C : 근육 경련 – 다량의 땀으로 수분과 염분을 상실했을 때 수분만 보급하고 염분을 보급하지 않으면 근육 중의 전해질의 균형이 붕괴되어 경련을 일으킨다. 생리식염수나 스포츠음료수를 마시면 좋다.

D : 혈전

E : 부종 – 신체에 탈수가 진행되면 체내에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 오줌 배설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호르몬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중단해도 12-48시간 동안 계속해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분만 공급해도 상당한 피로와 장해를 피할 수 있다. 수분을 공급할 때는 마시는 양은 줄이고 횟수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위원 고 재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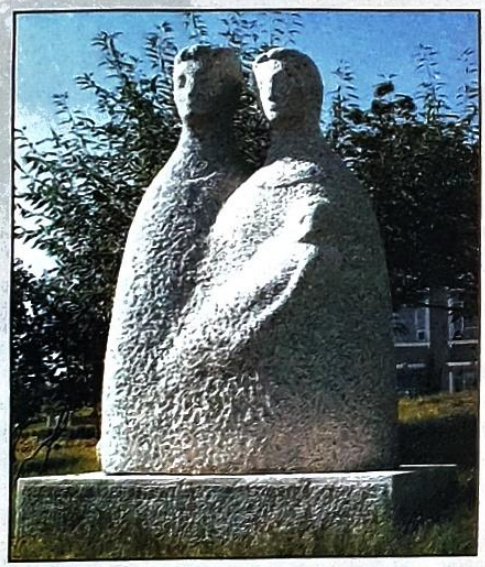
제시뉴욕·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숙녀복 전문
패·션·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은 언제나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오의석 / 한가족 / 화강석 130×60×200cm

〈작품설명〉
이 작품의 가족 표현은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진부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부해 보이는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일체성에 대한 고백,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자녀를 부담과 짐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이자 위로부터 받는 기쁨의 선물로 바라보는 가족관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세상입니다. 대학 캠퍼스 조각공원의 한켠, 여학생 기숙사 가까이에 작품 '한 가족'을 들로 쪼아 세운 뜻은 가정 안에서 가족의 하나 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학생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 이 권 형]

아빠의 마음

사랑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세월이 흘러
서툰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많지만
늘 사랑스런 당신

고운 아이들과 함께
물댄 동산같이
정겨움이 있는 당신
사랑해요

세월이 또 흘러
익숙다 못해
평생 한 몸이 된
당신과 나의 삶

사랑해요

- 시. 김 장 기 (춘천한길교회 권사)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7

건강한 물마시기(I)



정 형 만 원장
(참사랑내과)

우리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밥은 먹지 않아도 30~40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 수가 없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은 체내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각 기관에 영양소를 전달하며,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물이 부족하면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두통 등 갖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1. 좋은 물이란?

물의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물 분자의 모양은 온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중 육각수(六角水)가 몸에 좋다는 주장이 있다. 의학적으로 좋은 물의 조건은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음식의 분해, 소화, 흡수를 높이는 약알칼리성(pH7.5 정도)이 산성화한 물보다 좋은 것으로 본다. 약알칼리성을 띠는 물은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과망간산칼륨은 물속의 유기물로 함유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경도는 물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는 정도로 수치가 클수록 물맛이 세고 거칠다. 미네랄이 적당하게 녹아있는 물은 특유의 씹히는 맛이 있다. 좋은 물의 공통점은 유해물질이 없고 깨끗하며 약알칼리 성질을 갖는 것이다.

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좋은 물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 둘째, 미네랄이 풍부한 물. 셋째, 약알칼리성의 물. 넷째,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물. 다섯째, 6각수가 풍부한 치밀한 구조의 물. 여섯째, 인체에 이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물.

그렇다면 '죽은 물'은 어떤 물일까? 일반적으로 '물속에 산소와 미네랄이 없다'는 의미다. 찬물과 끓인 물은 물 분자의 활동성과 용존산소량에서 차이가 난다. 물을 끓일 때는 분자활동이 활발해져서 체내 흡수가 잘되지만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물은 끓였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다시 산소가 흡수되고 미네랄 함유량은 끓이기 전과 차이가 없다. 즉 '끓인 물이 죽은 물'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물속에 산소가 많아야 더 좋다는 근거는 없다.

2. 차(茶)성분이 중금속을 제거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적으로 보리차를 끓여 마셨다. 미국에서도 카페인프리 커피의 대용식으로 사랑받는 보리차는 중금속함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물을 끓이면 미생물, 염소 등은 살균되거나 증발하지만 중금속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 보리, 결명자, 옥수수 등을 넣어 끓이면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것은 차를 볶을 때 생긴 탄소 성분이 끓는 물속에서 중금속을 흡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보리의 중금속 제거율은 오래 볶고, 물을 오래 끓일수록, 차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강원대 환경과학과 김희갑 교수팀의 보리차 및 옥수수차의 금속제거 효과 연구결과 '알곡 보리차, 옥수수차, 티백 보리차 순으로 중금속 제거율이 높았다'고 한다. 차를 끓이고 난 곡식알갱이나 티백에는 중금속이 흡착되어 있으므로 먹지 말고 버린다.

3. 순수한 물이아니면 수분보충 효과가 없다.

음료수나 녹차, 커피 등을 마시는 것은 수분보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커피 녹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체내수분을 배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술도 마찬가지이다. 단백질, 당분, 지방 등 칼로리가 있는 음료는 물이라기보다는 음식으로 보아야 한다. 단, 보리차나 결명자차 등 일반적으로 물 대신 끓여먹는 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물 보충 효과가 있다.

정수기는 세균의 온상일 수 있다. 특히 필터가 수돗물의 염소를 걸러내, 정수기 안은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상태이다. 청소와 필터교체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몇 시간 사용하지 않았다가 물을 쓸 때는 30초 이상 물을 버리고 사용한다.

[다음호에 계속]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 4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기독문화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문화란 생활방식(conversation, 엡4:22; 빌1:27; 3:20; 히13:7; 약3:13; 벧전1:18)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문화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이시며(요14:6), 모든 것의 주인(행10:36; 히1:2; 롬14:5-8절에서 실천적 다양성에 대해 관용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되심이라는 세계관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에 의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갈6:14; 롬6:6)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라

세상의 행위들을 악하다고 증거 하신(요7:7)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이상한 현상은 자신을 지키지 못해 세상에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고(롬6:4)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갈6:15; 엡2:10; 딛2:14),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왕국의 삶(롬14:17)을 살게 하셨다(빌3:20).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기독교인의 수준 높은(?) 삶보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수 위인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빌1:9-11).

작금의 기독교인의 삶의 수준이 비기독교인의 삶의 수준보다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교회가 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어 다만 내던져져 사람들의 발아래 밟힌 소금이 되었고(마5:13), 내던져져 시들어 버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사르게 된 가지처럼 되었지만(요15:6),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은 자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후7:1; 벧전2:11).

진리의 띠를 띠고 세상 속으로

춘천에는 1950년 전후에 지어진 3곳의 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죽림동 주교좌성당'이라고 부르는 것과 '춘천문화원' 그리고 '소양로 천주교회'라는 건물이 그것이다. 사탄의 회당(계2:9)인 자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고후11:13-15),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는 교회당 문화 하나조차 진리를, 신격의 충만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용주의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슬프기 그지없다. 바벨탑을 짓는 하나님 반역 사상이 교회당 문화에도 들어와 있으니 우리의 수준을 변명할 수가 없다. 새로 짓는 절과 성당은 앞으로 100년만 지나가면 문화재가 되지만, 교회당은 100년이 지나면 있지도 않는다. 마치 회개치 않아 주님이 속히 와서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 교회처럼(계2:5; 고전5장에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당이 아닌 교회의 순수함과 진리를 지킴을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쓴 서신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스런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함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적인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외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니와,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9-13절).**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는(진정 행4:12; 3:15; 5:31; 10:42-43을 믿는다면) 복음적 문화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만(고전9:19-22; 10:32-33), 우리의 생활방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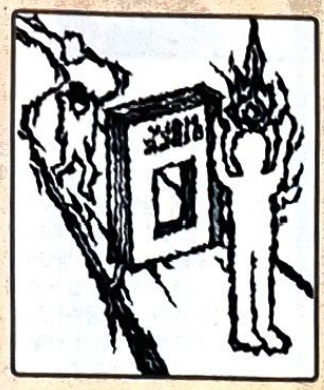
솔리스트 카나리아

독일 힐츠 산맥 인근에 유명한 조류공원이 있다. 이 공원의 카나리아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게 되면 방문객들은 그야말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카나리아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합창을 리드하는 소위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다. 공원의 관예상은 새를 팔 때 소위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따로 분류해서 절대로 팔려고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 카나리아가 다른 새들을 자극해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내는 것이다. 교우들 중에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는 마치 영적인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반 성도들을 리드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교회에 보석같이 귀한 분들이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lysince93@hanmail.net



고난은 축복의 길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최영조

편집 위원: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샬롬간병인

-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전문간병사의 손길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분
- 간병사가 필요하신 분

사무장 권 정 자 ※ 저희업체는 환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GS스타주유소 2F
T. 033-242-3013 M. 011-365-9714
E. kwong62@hanmail.net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심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사랑과 희망의 달, 5월



축제의 달이자 '가정의 달' 이기도 한 5월, 춘천의 곳곳에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5월의 싱그러움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독교 행사들이 펼쳐진다. 5월 한 달 동안 소중한 가정,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뜬 분위기 속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 제20회 파란글꽃그림 잔치 및 동요부르기대회

월드비전강원지부(☎254-7244)는 5월 5일(화) 온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춘천시 지역의 초등학교 및 미취학 2,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일장 · 사생대회 · 동요대회**를 개최한다. 부대행사로는 아동권리캠페인, 가족지킴이캠페인, 솟대깍기, 타일그림그리기, 캐리커쳐, 인형극 소원걸개, 종이비행기 접기,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찍어주기, 신소재체험(과학 퀴즈쇼!) 등이 열리게 된다.

■ 2009 사랑의 점심나누기 실시

1993년 시작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은 강원도내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강원지부와 강원도민일보가 시작한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이웃돕기 캠페인이다. 금년에도 **강원도민일보사 ● 춘천MBC ● 춘천CBS ● 영동CBS ● 월드비전 강원지부 공동주최, 월드비전강원지회연합회(19개지회)의 주관으로 도내 18개시 · 군을 순회하며 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랑의동전밭, 긴급구호영양죽 시음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난으로 인해 급식비가 없어 어려운 **도내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점심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에티오피아에 식량지원을 위한 시범농장과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강원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

■ 발상전환으로 새로운 전도문화를 창출한 '음악과 강연의 밤'



매년 5월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 개최되는 '음악과 강연의 밤' 이 춘천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참여로 14회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음악과 강연의 밤' 은 학원복음화협의회와 협력하여 캠피스 복음축제(EF: Evangel Festival)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행사 : 14회 음악과 강연의 밤 (Evangel Festival)
♠ 일시 : 2009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00-9:00
♠ 장소 :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 내용 : 뮤지컬 갈라콘서트(로렌조 컴퍼니), 아카펠라(A-Seed), 난타 퍼포먼스(예끼), 말씀(신동렬 소장, 소명연구소)

EF는 지역교회의 청년대학부의 전도 활성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돕기 위해 젊은 감각에 맞는 기획과 복음의 깊이가 어우러진 축제이다. 이를 위해 EF는 복음과 전도대상자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3년간 '음악과 강연의 밤' 에 참석하여 백령문화관을 그득 채운 사람들 중 절반 이상, 즉 평균 700명 이상이 비신자들이었다. EF를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 ♠ 예약 : club.cyworld.com/2009efcc

♠ 후원 : 신한은행 110-054-065841, 예금주: 남상욱 교수선교회

EF는 1명 이상의 비신자와 동행하시는 것이 원칙이여서 좌석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예약사이트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음악과 강연의 밤' 준비위원회(TEL: 010-7417-2226)로 연락하면 필요한 만큼 초청장을 보내드린다. '음악과 강연의 밤' 은 우리 모두의 복음축제이므로 춘천의 교회들의 기도와 참여를 통해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9년 도시선교 로렌 커닝햄 목사 춘천지역 투어



YWAM 로렌 커닝햄 목사가 5월 한 달 동안 한국의 4개 도시를 투어하며 진행되는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춘천지역 대회는 다음과 같다.

♠ 일정: 5월 18일 - 19일 집회 오후7시,
지도자세미나 19일(화) 오전10시
♠ 장소: 석사감리교회
♠ 강사: 로렌 커닝햄은 YWAM(Youth With A Mission)선교회를 1960년에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5,000명의 사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 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는 YWAM의 Chairman(의장)이며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총장이다. 저서로「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하나님의 책」,「버킹검 삶으로의 도전」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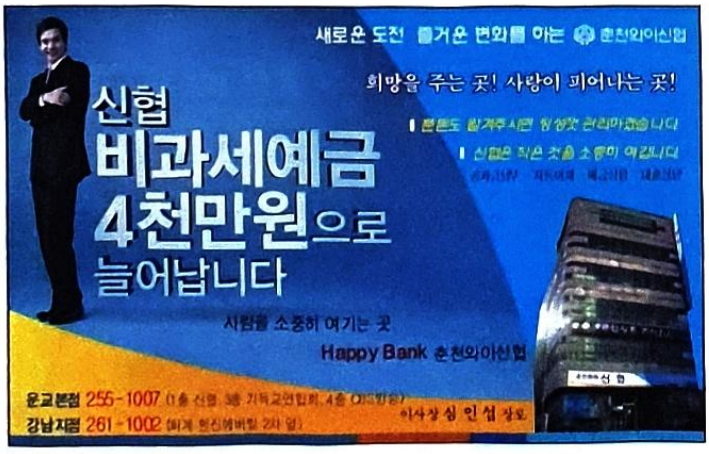
【춘천성시화리그 교회대항 축구대회 4월 경기전적】 2009. 4. 21 현재

교회	강촌	금산	동부	명화	석사	소양	온누리	제일	중앙	지내리	평화	효자	경기			득점	실점	득실	점수	순위
													지	승	무	패				
강촌							1:0	4:1				3:4	2:3	4	2	0	2	10	8	-2	8	7
금산						2:4			5:0	1:2		0:2	4	0	0	4	6	17	-11	0	11
동부				6:2		5:2		3:0			3:2		4	4	0	0	17	6	11	12	3
명화			2:6		1:6		0:3		1:4	1:5			5	0	0	5	5	24	-19	0	13
석사				6:1		4:3		5:2					3	3	0	0	15	6	9	9	5
소양	0:1		2:5		3:4		2:2		0:1				5	0	1	4	7	13	-6	1	10
온누리		4:2		3:0		2:2		3:0			3:1		5	4	1	0	14	5	9	13	2
제일	1:4		0:3		2:5		0:3						4	0	0	4	3	15	-12	0	12
중앙		9:3		4:1		1:0				2:0		4:1	5	5	0	0	20	5	15	15	1
지내리		2:1		5:1				0:2			2:2	2:1	5	3	1	1	11	7	4	10	4
평화	4:3		2:3								3:2	3:2	5	2	0	1	9	8	1	6	6
효자		2:0				1:3		1:4	2:2			1:1	5	1	2	2	7	9	-2	5	8
	3:2								1:2	2:3	1:1		4	1	1	2	7	8	-1	4	9

5월 경기일정

구분	시간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5월 25일
A	20-21	온누리:효자	평화:동부	제일:석사	소양:효자
	21-22	제일:시온	강촌:금산	중앙:동부	제일:동부
B	20-21	중앙:석사	시온:효자	지내리:금산	온누리:삼천동
	21-22	지내리:삼천동	온누리:소양	평화:강촌	시온: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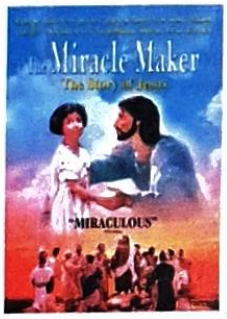
▶ 춘천성시화리그 교회 대항 축구대회
○ 일 정 : 2009. 3월 ~ 7월(5개월간), 매주 월요일 20:00-23:00
○ 장 소 : 공지천 축구장 / ○ 진행방법 : 풀리그 (22주 78경기)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3>

미라클메이커(The Miracle Maker)와 조안 오브 아카디아(Joan of Arca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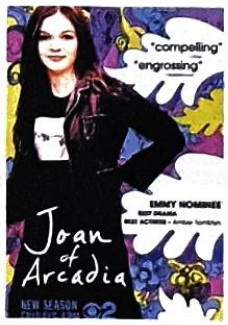


먼저 〈미라클메이커:기적창조자〉는 3D애니메이션이다. 야이로의 딸 다말이라는 소녀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새롭게 바라보는 내용이다. '달리다굼' 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성경상으로는 이름이 없어 이 영화에서 다말이라고 설정하였는데, 티 없이 순수하고 맑은 소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고 있다. 자신을 치유하고 복음을 설파하며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더욱 감동적으로 그려져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다. 기존의 연대기적 구성이 아니라 참신하고 새로운 전개로 감동을 극대화시키며 은혜를 주고 있다.

2000년 개봉작으로 〈잉글리시 페이션트〉, 〈해리 포터〉 등에서 유명한 배우 랄프 하인즈가 예수님 목소리로 출연하였고, 스테니슬라브 소코로브 감독이 샐리 험블잭슨의 원작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점토로 만든 클레이+페이퍼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완성도 뛰어난 온가족용 영화이다. 〈상영시간 91분〉

현대판 잔 다르크로도 불리며 제목도 거기에서 따왔다는 〈조안 오브 아카디아〉는 미국 드라마이다. CBS기독교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되어 현재 2시즌까지 나와 있다. 근래 들어 〈프렌즈〉, 〈로스트〉, 〈프리즌브레이크〉, 〈CSI〉 등으로 네티즌 사이에 소위 '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영화적인 스케일과 구성 및 화면으로 극장상영 못지않은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다. 대개 폭력과 범죄, 성문화 등 말초적인 주제 일색인데 비해 이 드라마는 매우 건전하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그러나 깊고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카디아라는 마을에서 경찰관인 아빠, 교통사고로 불구인 오빠, 학교직원인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매회 만나는 다양한 모습의 신을 통해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청바지 돌려입기〉의 엠버 탐블린, 〈대부 3〉의 조 맨테그나, 연기파 명배우 메리 스틴버겐 등 이름 높은 출연진의 깊은 내면연기로 격조를 높이며 복음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드라마이다. 미국적 기독교여서 그런지 목사 대신 신부가 등장하는데 이는 카톨릭과 무관함을 말해둔다. 〈매회 40분 1,2시즌 총 40여 부작〉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책소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낸시 레이 드모스 / 팀 그리솜 지음, 미션월드, 2008.



부흥이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완전한 변혁이다! 부흥은 교회와 가정과 당신의 마음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부흥을 경험하라!

과거에 대 각성을 일으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1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열방의 가슴을 돌이키시고 이 방탕한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길 간절히 원하신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세상과 자신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12주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양방향 공부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에는 읽을거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숙고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각 과는 개인적으로 5일 동안 날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여섯째 날에는 그룹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그룹을 지어 공부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낸시 레이 드모스(Nancy Leigh DeMoss)'와 '팀 그리솜(Tim Grissom)'. 설교 강사인 낸시는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 마음을 부흥케 하소서(Revive Our Hearts)'의 진행을 맡고 있으며, 팀 그리솜은 아칸소 주 리틀록에 살면서 가정생활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저자는 성경이 삶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힘쓰며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돕고 있다.

12주 동안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고, 신비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일상적인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분명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갓깨밀리 / 글정리. 편집부]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1계좌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4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평화심로암교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우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형복제가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욱	강태강
고순덕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라현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청혜	김충은	김충익
김충찬	김주환	김진삼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려희	박민관	박정애
박제자	박충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흥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희	윤성자	윤애자
윤대호	윤홍목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영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향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철순	전영묵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경찬북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재	조정일
조정자	지경희	차경자	최계화
최명숙	최상호	최영순	최을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아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덕기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A 호산나악기 Ω
- 악 기 점 문 점 -
피아노(국산 수입, 신품 중고), 매매, 조율, 수리, 운반, 감정, 방음, 악
연악기 관악기 타악기 매매, 수리, 각종 부속품 판매
국악기(단소 장구 등), 취미악기(기타 하모니카 등)
교재악기(리코더 오카리나 등), 음악도구(튜너
운영자 이무식 장로 (010-7624-0089)
이범덕 집사 (010-4125-7343)
☎ 033) 261-2305 - 믿음으로 커가는 가
위치. 석사사거리에서 교대 사이(교대 후문 맞은편)



엘리 선지자의 실패한 자녀교육에서 배우는 교훈

차 성 도 (강원대 교수)
강원대가족교수선교회회장, 한국창조과학회이사

성경은 엘리 선지자의 실패한 자녀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자녀교육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는 자녀교육에 실패하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가문의 사람들도 젊어서 죽게 되었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전해 듣던 중에 목이 부러져 죽고 만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녀 그리고 가문 전체와 국가까지 엄청난 수렁으로 몰고 간 이 모든 재앙은 자녀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교육 만능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한 요즘 엘리 선지자의 자녀교육 실패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삼상 2:29)

엘리 선지자의 **첫 번째 자녀교육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에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교육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자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은 "변변한 대학에라도 못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냐? 시험기간만이라도 중고등부에서 시간허비하지 말고 대예배 보고 빨리 가서 공부해라!"라는 말을 종종 접한다. 이와 같은 맘은 "얘야, 공부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단다."라는 메시지를 자녀의 마음속에 각인시킨다. 이렇듯 학교석차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명문학교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자녀교육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실패였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3:13)

엘리 선지자의 **두 번째 자녀교육 실패는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자녀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부모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신앙을 등한시하여도 부모들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녀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나, 공부 안할 거야!"라며 토라질세라 명백한 잘못도 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적이 불모가 되어 자녀들의 분명한 잘못을 금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실패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삼상 2:12)

엘리 선지자의 **세 번째 자녀교육 실패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불량자가 되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시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엄하게 대하고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반면에 자녀들의 잘못된 예배 태도나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리 만무다. 이렇듯 공부에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실패였다.

요즘 교회 안에서 엘리 선지자의 자녀교육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쉽사리 발견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자녀교육의 실패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미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 **창조과학이나 기독교교육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시본부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봄학기 주간교사강습회
일시: 3월 3일~5월 19일(매주 화, 총12주) 오전10:00~1:00
장소: 신성감리교회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에스컴

1) 청소년 리더십 훈련과정 <위대한 인생>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장소: 에스컴 사무실
2) 기독중아리 연합체육대회
일시: 5월 15일(금. 장소, 시간 추후 공지
3)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5월 16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4) 에스컴 썸머 캠프 <가라 모세!>
•1차 8월 6~8일 평화수양관(남양주)
•2차 8월10~12일 송신수양관(마석)
문의: 에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박진용 간사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2차 초급LTC 및 구악개관
일시: 5월 11일(월) ~ 15일(금)
2) 여름수련회팀
일시: 5월 22일(금)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봄내병원 옆)
대상: 중보기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3) YWAM 춘천지역 로렌커닝햄 투어
일시: 5월 18일~19일 오후7시, 지도자세미나 19일 오전10시
장소: 석사교회 문의: 춘천지부 252-1128

◆ IVF

1) 연합 RUN모임
일시: 5월 1일(금) 오후7시 장소: IVF회관
2) 새벗 수련회
일시: 5월 4일(월) ~ 6일(수) 장소: 강촌교회
문의: 252-5200

◆ JDM

1) 미션 09 발대식
일시: 5월 15일(금 장소: 대전 한남대학교
2) 친구초청진치
일시: 5월 26일(화) 오후7시 장소: 강원대 영상바이오관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춘천지부 비전기도회
일시: 5월 4일(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문교사거리 대용빌딩2층)
2) GMF 수련회
일시: 5월 6일(수) ~ 7일(목) 장소: 철원
3) 전국지부 간사모임
일시: 5월 7일(목 ~ 8일(금) 장소: 춘천동부교회
4) 선교학교 수료식
일시: 5월 21일(목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문의: GBT춘천지부 252-3927 chunchoen@v201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BTJ 청소년 예배(춘천지역교회 모든 청소년을 위한)
일시: 5월 9일(토) 오후6시 장소: 효자교회(효자3동사무소 아래)
2) 청소년 비전스쿨
일시: 5월 16일 ~ 6월 20일(6주간, 1박2일 캠프3회 포함)
장소: 효자교회 문의: 장명자 간사 016-797-9234
3) 2009 선교캠프 – 세대별로 선교캠프 진행
• 어린이 선교캠프 7.23 ~ 25, 충주호 리조트
• 청소년 선교캠프 7.23 ~ 25, 호서대 아산캠퍼스
• 청년대학생 선교캠프 6.24 ~ 27, 호서대 아산캠퍼스
• 여성시니어 선교캠프 7.9 ~ 11, 원주명성수양관
4) 하늘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 월드미션
일시: 5월 18일(월) 장소: 춘천광염교회(에덴빌)
지부문의: 033)262-1040, 송봄춘 간사 010-9125-5894

◆ 제이랙(춘천연합찬양단) 찬양대 위촉

일시: 5월 4일, 18일(월) 오후7시 장소: 이부이가는교회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집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사회복지개 위원선교단 토요위원대는생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회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앞) 문의: 263-6022, 017-374-2440

◆ 부부의 날! – 둘이 하나 되어

일시: 5.21(목), 오후 3시부터(기념식 7시)
장소: 춘천YMCA 본관(동면 장학리 석정가는 옆) 문의: 255-1001

◆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 춘천성산교회(미소지움 앞, ☎252-4793)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시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층 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 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돕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급반 / 중급반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원칭)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장소: 춘천동성교회
운영: 3개월 코스 (S/A) 6만원, 선교: 일반시민 무료
문의: 뉴랜드음악선교원 010-6654-8280

◆ 미리클 하모니 단원모집(찬양을 통한 선교를 목적)

대상반 30세 이상세례교인, 비전공자 가능 찬양의 열정을 가지신 분 환영
연습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7:30~9:30
연습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강당 (춘천법원 옆)
문의: 019-763-8868, cafe.daum.net/Miradeharmony

◆ 5월 심령대부흥회

일시: 5월 11 ~ 14일 오전 11시, 저녁 8시 장소: 오순절기도원
강사: 김재원 목사(인천열린문교회) 문의: 010-8263-0190

◆ 장수생활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 장로

◆ 할리클럽 / 3주년 가족 성령대부흥회

일시: 6. 14 ~ 17일. 장소: 인디옥교회
강사: 김삼환 목사(서울명성교회), 김홍도 목사(서울금란교회)
손기철 장로(건국대 교수)

◆ 청사회 연합등 보기도회(CCPN)

일시: 5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유스이트홈(중앙상가 맞은편)
주제: 가족, 교문회, 가정 주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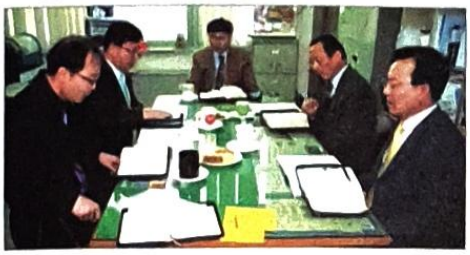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 방문 요양센터(기관)
센터장 / 남부제일감리교회 송 항 순 장로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과 65세 미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서비스 : – 등급판정 안내
– 요양사(1급)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식사 · 세탁 · 청소 · 산책 · 병원 진료 동행
☎ 상담문의 033)251-4452, 019-9138-4452 (남부로터리 대원당 옆)

중국어 개인과외
차이나 왕(王)
저렴하면서 실속 있는 개인 및 그룹 과외입니다.
원어민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어 유지반	중국어를 이미 하시는 분들의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실
제2 외국어반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기 위한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실
초급중국어반	초 · 중등학생들을 위한 쉬운 중국어 교실
고급중국어반	기초 중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
밍밍반	유아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

"차이나 왕" 과외는 비니비 유학생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중국선교를 돕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선택입니다
문의 전화(TEL) : 010-2420-8865, 010-8609-4050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4월 6일(월)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염명동 목사(사랑감리교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1~9)란 제목으로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부활절연합예배와 산딸나무심기, 홀리클럽창립기념 부흥성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부흥의 주역이 되라!



강원지역 파워관계전도세미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춘천베드로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춘일)에서 열렸다. 강사 송기배 목사는 "부흥의 주역이 되라"란 주제로 "전도란 꽃의 찬란함을 포기하는 것이며 스스로 거친 들판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라며 가정사역을 통한 관계전도 전략에 대해 강연하였다.

■ 경제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4월 3일(금) 오전11시 유스아트홈에서 춘천홀리클럽 주관으로 "경제회복과 실업문제"란 주제로 열렸다. 엄기홍 목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홍세표 농협자산관리(주)강원지사장은 "경제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적당한 소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위기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청소년과 캠퍼스 사역, 춘천 성시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다.

■ 성시신문 편집위원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 최영조목사)는 4월 3일(금) 오후 2시 성시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125호 평가회 및 126호(5월) 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활절 희망을 전하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장효근목사)는 2009년 부활주일연합예배를 4월 12일(주일) 세백5시 호반체육관에서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첫 순서로 진행된 '십자가 피포먼스'(광염교회)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재현하여 그의 값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새기게 했다. 유동선 목사(중앙성결교회)의 사회로 드리진 예배는 기도 이영식 장로(중앙감리교회), 성경봉독 고재만 목사(평안교회), 장효근 목사(동성교회)는 '부활의 위력'(고전 15:20-23)을 주제로 "부활의 산 소망, 이 희망이 온 땅에 피지기를 소망하며, 부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박인관 목사(광염교회)의 인도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춘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가 ▲나라와 민족, ▲춘천시와 강원도 ▲교회연합과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어 이광준 춘천시장과 허천 국회의원의 축사, 김창수 목사(신성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시목 산딸나무 식목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장효근목사)는 산딸나무(일명:십자가나무)를 성시목으로 정하고, 4월 16일(목) 오전10시부터 GS마트 건너편 대로변 녹지대에 산딸나무를 식목행사를 펼쳤다. 이날 장효근 본부장, 정재호 사무총장, 이하규 춘천홀리클럽회장, 이영식 장로연합회장을 비롯해 성시화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120그루의 산딸나무를 식목하였다.

춘천 교역자 정기 기도모임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 주최로 매월마다 열리는 교역자 정기 기도모임이 4월 27일(월) 오후7시 춘천은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저녁만찬 후 춘천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성령충만과 부흥, 춘천과 강원도의 발전, 춘천성시화와 교회연합, 나라와 민족화음화, 남북문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5월 정기기도회는 18일(월) 저녁8시 춘천새누리교회(담임 한수진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생활지도연합회 아동학대 심각성 알려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기원)은 4월 9일(목) 오후4시30분 강원도 춘천 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사랑의 헌혈운동 펼쳐



춘천재일감리교회(담임목사 원종국)는 부활주일을 맞이해 4월 12일(주일), 청년부 주관으로 헌혈과 장기기증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14명이 헌혈을, 27명이 장기기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했다.

■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하규) 주최, CBS춘천방송(본부장:김세환) 주관으로 4월 20일(월) 오전6시30분 석사교회에서 정기 기도회로 모였다. 이날 CBS는 방송선교보고 후 방송선교의 중요성과 지역 교회들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6월에 열리는 홀리클럽 13주년 기념 성령대부흥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제6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개강



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 안동규) 제6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교육 개강식이 4월 24일(금) 오후6시 춘천 라데나콘도에서 안동규 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과 1기~5기 동문, 신발된 88명의 6기 교육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춘천와이신협 장학금 전달



춘천와이신협(이사장 심인섭)은 4월 24일(금) 신협 3층 강당에서 2009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장학금 수혜자-정서진(춘천고3), 황은지(춘이고3), 임현규(춘천고2), 이인규(서대고3), 송현주(유봉여고2), 이준일(춘천고1), 이수지(유봉이고1), 주지훈(춘천고1) 총8명.

꿈과 희망이 넘치는
노인요양원 행복의 집



좋은 환경과 최신시설을 갖추고 장기요양인정 1,2등급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문 인력의 요양서비스, 물리치료, 건강 체크, 프로그램운영 등 23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과 더불어 고풍스럽고 세련된 실내공간과 아름다운 잔디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모체로는 무지개동산이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11-448-7660

▷ 사무실전화 : 033)242-3005 fax 253-6007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5-6번지

2009학년도 2학기 5월 7일(목) 개강



춘천캠퍼스 원장 박 상 호 목사



학장 윤용진 목사(Ph.D)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영적지도자 양성 및 훈련

신입생 모집 YHWH Theological Seminary 야웨(יהוה)신학교

2009년도 야웨(יהוה)신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내용	캠퍼스	제출서류	수업일	비고
상담연구원 (M.A.equ.)	기독상담시 영성교육	서울, 춘천	입학원서 (다운로드) 최종졸업증명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컬러 사진	주 1 회(월요일)	실제사역중심
교회음악부 (B.A.equ.)	마이노 바이올린	서울		주 1 회 (소정가능)	실기 중심
성경연구부 (B.Th.equ.)	성경연구 & 신학준비과정	서울, 춘천, 청주		주 2 회 (청주 주3회)	시간과 커리큘 졸업수업이 어려운 국내 · 해외지역 직장분 등영상강의로도 이수 가능함
신학연구원 (M.Div.equ.)	목사(선교사) 양성교육	서울, 춘천, 청주		주 2 회 (청주 주3회)	
성경대학원 (Th.M.equ.)	본문주해설교 & 성경교수법	서울, 춘천		서울 월2일 춘천 주1회	

야웨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www.yhwhschool.org
yhwhschool@hanmail.net

문의 전화 : 02 - 3281 - 9256 / 070 - 8236 - 9256



신학과 영성
학업과 지성
생활과 정서
21세기 리더십
신학교의 모든것

한국교계의 지도자 양성
세계의 목회현장에 원하는
영적전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야웨 신학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뛰어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야웨 신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 서울캠퍼스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번지 아엔씨 벤처드림타워 2차 1301호
  02) 3281-9256 / 011-340-5205
-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번지 춘천제일장로교회
  033) 253-7942 / 010-8901-0059
- 청주캠퍼스 :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20-1번지 코스모스선교교회
  043) 223-0975 / 010-5588-9648
- 해외캠퍼스 : 제 1 캠퍼스(5국) / 제 2 캠퍼스(G국) - 성경학부, 신학연구원, 성경대학원
  070) 8236-9256 / 019-375-9256

야웨 신 학 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춘천성시화운동본부